

했다. 동학사 비구니스님들의 슬프디 슬픈 사연들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정년 퇴직을 앞두고 서울에서 이전한 공군본부를 따라 내려와 그때서야 계룡산의 사계를 완연히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출근해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세월들의 흔적을 매일 다른 얼굴로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봄이면 푸른 물감을 풀어놓듯 매일 계룡산 천황봉을 한 뼘씩 기어 올라가는 푸른군대의 기상(氣像)을 보여줬으며, 가을이면 천황봉에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최초로 불여놓은 불자락이 한 뼘씩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자연의 섭리를 깨우쳐줬다.

매주 수요일 오후와 휴무 날이면 계절의 변화를 찾아 오르내리던 계룡산, 정년 후에도 나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내생의 마지막 문학열정을 심어놓기 위하여 그 자락에 묻혀 산다.

옛 생각에 찾는 동학사 가는 길섶 늪은 빛나무들도 수명을 다하여 봄에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니 이제 가을이 와도 낙엽이 풍성할리 없다.

그래도 몇 십 년 전에 나는 계룡산 가을 예찬을 하면서 '동학사 가는 길섶 가을바람

에 낙엽 흩날리는 빛나무 가로수 밑을 바라 리코트 입은 여인이 빨간 하이힐 신고 푹푹 추억을 짊어지며 간다'고 했다.

서정과 낭만을 안겨주던 내 젊은 날의 계룡산이 나이와 더불어 늙어가고 있음을 본다.

차라리 퇴직 후 먼 곳으로 떠나 간혹 기행을 핑계로 찾아오는 곳이었다면,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 때문에 밤잠을 설쳤으리라.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장군봉, 동학사, 신원사, 갑사 등 모든 지세와 문화재들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바뀌고 세월이 흐른 만큼 풍경도 자세를 바꾸었다. 무작위로 휴무 일마다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짓밟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에 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나마 군사지역으로 선을 긋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만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라지는 풍경들은 다시 복원시키기가 쉽지 않다.

가을이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단풍든 계룡산이 너무 아름답다. 무조건 산행을 허가만 할 게 아니라 자손만대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이 금수강산이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이는 일본 내에서 한국계 학교의 존재와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된 것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한국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번 우승으로 교토국제고의 야구부는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닌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작은 학교의 야구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한 결과, 일본 전역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스포츠의 힘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장벽을 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백승환 교토국제고 교장은 이번 우승 후 인터뷰에서 "야구를 통해 학교 발전과 동포 사회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토국제고 등학교의 우승과 한국어 교가의 울림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일본 사회 내에서 한국계 학교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스포츠를 통한 승리를 넘어, 재일교포 사회와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교토국제고의 성과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이 학교가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번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성취는 그 자체로 값진 승리이며, 앞으로도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교가(校歌) 이야기에서 국가(國歌) 이야기로 넘어간다.

2024년 현재 세계지리정보원에 등록된 237개 국가 중 UN에 가입된 나라는 192개 국가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가는 각기 다른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갖고 있지만 국가(國歌)가 없는 나라가 있다. 바로 유럽의 스페인(SPAIN)이 국가(國歌)가 없는 국가(國家)이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국제 축구 랭킹 1위인 스페인이 축구대회를 우승했다. 그런데 금메달 수여식장에서 스페인 국가의 노랫말은 없이 군 행진곡만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국가(國歌)가 없을까? 궁금하다.

스페인 국가 "La Marcha Real"은 전통적으로 가사 없이 연주되는 국가이다.

스페인 국가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식적으로 가사가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곡은 18세기 스페인 왕 카를로스 3세의 통치 시기에 처음 도입된 군악곡(軍樂曲)이며 당시 군대(軍隊) 행진곡이었다. <La Marcha Real>이란 <왕(王)의 행진곡>을 뜻하며 가사(歌詞)가 없는 기악곡(器樂曲)이다. 지난 시절 스페인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가사가 채택하지 못했다. 스페인 선수들은 우승 시상식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도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부를 노랫말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가사를 붙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C~20C 초에 시인들과 작곡가들이 애국가 가사를 제안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프란코(Franco) 독재 시절에는 가사가 잠시 사용되기도 했지만, 독재정권이 끝난 후 다시 가사가 없는 형태로 돌아갔다. 스페인 정부는 계속해서 애국가 가사를 제정하려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언어적, 지역적 다양성이 큰 스페인에서 통일된 가사를 만드는 게 여의치 못했다. 지금도 <La Marcha Real>은 가사가 없는 스페인 국가로 연주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스페인이 우승해서 스페인 국가를 연주할 때 가사가 없는 음악 연주만 흘러나온다.

끝으로 '국가(國歌)'란 영어 단어가 'National Anthem'이다. 'Anthem'은 기독교 찬송가(讚頌歌)란 의미(意味)이다. 그렇다면 국가(國歌)란 'National Anthem'은 '각 나라 별로 부르는 한 나라의 찬송가'란 뜻이지 싶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국가와 독일 국가의 가사(歌詞)는 기독교 찬송가에 나오는 문구(文句)임을 알 수가 있다. "일본 국가 '기미가요(きみがよ)'는 장송곡(葬送曲)처럼 들리며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歌詞)는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이기보다는 너무 축소지향적(縮小指向的)인 느낌이 든다"고 한 식자(識者)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교토국제고 교가를 듣던 중 노랫말이 없는 스페인 국가가 생각나서 중언부언(重言復言)했다.//

교토국제고 교가(校歌)와 스페인 국가(國歌)

전대길 (주)동양 EMS대표이사,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



일본 교토국제고 등학교 야구부가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스포츠 승리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 야구는 국민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시엔 대회는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중 하나다. 이런 대회에서 전교생 160명의 작은 한국계 학교가 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차지한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자 역사적인 사건이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역사는 1947년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토 조선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일교포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교토국제고등학교로 발전한 이 학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 구성도 변화하여, 현재는 학생의 90%가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국제학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학교가 갖고 있는 한국계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번 우승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고시엔 대회는 일본 전국의 고등학교 중 3,837개 학교가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이며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스포츠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하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적인 성과를 넘어선다. 특히 경기 중 선수들이 홈플레이트에 모여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장면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동해'

라는 표현은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바다를 가리킨다. 이 교가가 일본 전역에 방송된 것은 일본 사회에 한국계 학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일본 내에서 한국계 학교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재일교포 사회의 자긍심을 크게 높였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야구부는 1999년에 창단된 지 25년이다. 하지만 이 작은 학교 야구부가 2021년에 4강에 진출한 데 이어 2024년 대회에서는 결승에까지 진출하여 우승한 것은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이 학교의 야구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해 왔다. 작은 운동장에서 찢어진 야구공으로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으며 선수들이 일본 전역의 학교들과 경쟁,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한 것은 한 마디로 감동 그 자체이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우승은 단순히 학교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우승은 한일 간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사회 내에서 재일교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들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토국제고의 성취는 재일교포 사회의 자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고시엔 대회에서 교토국제고의 우승과 교가의 울림은 일본 내 한국계 사회는 물론, 한국과 일본 양국에 큰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계 학교가 이뤄낸 이 성과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재일교포들이 세운 학교의 자긍심을 높이고, 양국 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고시엔 대회는 일본 내에서 큰 관심을 받는 행사다. 이 대회에서 한국어 교가가 다섯 번이나 울려 퍼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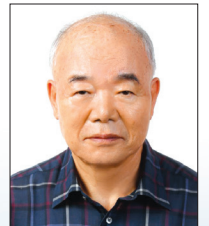
자녀를 위한 기도

고연호 (예 대위, 학사 59기)

바람부는 세상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꿈을 키우며
흔들림이 없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숲을 보면 나무도 볼 수 있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더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회원가입 안내

■ 공군전우회

△회원자격

공군에서 전역한 전 장교,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신 모든 공군예비역분을 모십니다.

△회원가입 절차

- 공군 현지부대에서 전역하는 장병/군무원들은 부대 인사 참모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전역하신 분은 본회(중앙회) 또는 전국지회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공군전우회 홈페이지 (www.airforce.ne.kr)를 통하여 가입하셔도 됩니다.

△회원구분

구분	자격	회비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20만원(1회)
준회원	홈페이지 가입자(회비미납자)	

·입금안내

- 우리은행 319-260099-01-001 / 공군전우회
- 국민은행 485501-01-108707 / 공군전우회
- 지로입금 / 지로번호 : 6306588

본회 지로용지를 동봉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서는 지로용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 회지(보라매)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별적 참가
- 재경지역 평생회원/연회원(해당년도 회비납입) 가입자 부모, 본인, 처 사망시 근조기 지원
- 10년미만 복무자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 대우
- 특별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함.

△신분별/직능별단체

단체명	회 장	사무(총)국장
공군항공고충동창회	김진홍 010-5187-3625	방정원 010-8618-4558
공군2사총동문회	김장희 010-5463-1786	김종현 010-4801-7034
공군ROTC장교회	김석찬 010-6233-7231	이상목 010-9382-1084
조종간부회	이옥희 010-4526-9856	최종환 010-6212-6644
황 성 회 (준사관)	장 군 010-5073-9424	신승진 010-5175-3051
원 우 회 (부사관)	차주성 010-3548-2893	정수일 010-5096-6150
군무원회	정화일 010-8753-6357	이 원 010-4273-7005
인터넷전우회 (로카피스)	이중근	이병권 010-5071-4763
공군통역장교회	심 건 010-9175-3886	김장환 010-4117-7158
유치곤장군보존회	김영오 010-8592-8804	-
순직조종사부인회	송우영 010-9020-8358	박종희 010-4021-3616

지 회	회 장	사무국장
광주시지부	손정문 010-3601-3899	김승식 010-3603-0724
대구지지부	남상석 010-3080-6432	정규채 010-8206-7712
대전지지부	김호중 010-5409-6881	신두철 010-3141-2207
부산지지부	김선호 010-3590-2852	김경태 010-5071-2286
인천지지부	최용주 010-9855-2930	윤양로 010-7749-7668
제주도지부	강영환 010-3939-9000	김상헌 010-9687-4312
강릉지지회	황용기 010-8277-5402	김광종 010-5061-8541
경주시지회	정진표 010-8364-3060	유시현 010-6511-0006
군산지지회	반영곤 010-5173-2975	고석권 010-8645-4105
군위군지회	은헌기 010-9460-1068	조임식 010-3441-7527
김해지지회	제해언 010-4560-0622	김민준 010-8208-7797
동두천지회	김정수 010-5036-5133	김인국 010-8722-5831
문경지지회	한상식 010-5769-4355	김동성 010-9795-4210
사천지지회	박갑용 010-9676-1907	문상경 010-6579-0220
서산지지회	홍만진 010-6422-9440	도임구 010-5081-7799
성남지지회	박문석 010-3768-1234	안제성 010-3631-0120
수원지지회	송요정 010-3319-3744	이혁재 010-4678-4065
속초지지회	권영화 010-3722-1777	김창혁 010-4314-0891
아산지지회	정순웅 010-5422-6945	이석중 010-8505-9802
영월지지회	장호근 010-5363-0748	이종구 010-8901-4827

양평군지회	김수영 010-2771-2772	김재학 010-3011-9693
영주시지회	허기영 010-3840-8381	석두환 010-9076-9002
이천시지회	한상욱 010-3485-9678	김기창 010-4760-8217
익산시지회	최병훈 010-2686-6111	차경수
예천군지회	양찬모 010-9191-8949	조원희 010-3548-0584
의왕지지회	이석우 010-5245-4639	이병래 010-8721-2984
원주시지회	김구식 010-4937-5110	이상인 010-5071-5151
전주시지회	오정수 010-5641-3496	윤한호 010-3676-9523
진주시지회	오기호 010-2207-9017	강석동 010-3872-4292
창원지지회	이성배 010-3566-6123	조진형 010-4879-9089
청주시지회	이근신 010-3576-9626	한일민 010-7774-3191
충남서부지회	조봉환 010-2253-7113	이선백 010-3029-3523
충주시지회	조동주 010-8441-1200	호웅기 010-5078-7656
철곡군지회	이진권 010-3503-0321	장병찬 010-8584-7070
철원군지회	구한서 010-6372-9332	임연재 010-5352-5381
포천지지회	신건영 010-5365-5647	하명균 010-8830-3816
평택지지회	왕관현 010-5256-0188	김근찬 010-2755-2071
화천지지회	김철준 010-6276-9889	이영수 010-8891-1393

△해외지회

지 역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 조지아	백남오	770-622-9227	
미국 덴바	김봉희	303-750-7476	
미국 샌디에고	이세중	760-845-12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김영본	919-946-6614	af66809@hotmail.com
미국 시카고	이근효	847-439-1168	
미국 뉴 욕	임재빈	201-233-6622	
미국 워싱턴	한수웅	301-806-2976	suhan317@yahoo.com
미국 L A	심인태	213-700-2566	intaishim@hanmail.net
미국 필라델피아	서장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두용	510-745-7874	
미국 하와이	장재혁	808-947-7582	9477582@gmail.com
캐나다 동부	위정남	647-802-9981	
캐나다 서부	홍창의	604-463-4129	
브라질 상파울로	박승문	5511-222-9325	
아르헨티나	전영표	11-4632-8139	
호주 시드니	윤석효	0417-049-722	

■ 공군발전협회

△회원자격 : 기관, 단체, 기업체 및 대한민국 국민(성인)

△회원구분

구분	자격	회비	
정 회 원	연 회 원	연간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원	평생회비 납부자	30만원(1회)
	후원회원	후 원 금 납부자	제한없음
단체회원	기관, 단체, 기업체	약정금액	
명예회원	이사회에서 위촉한 자	없 음	
일반회원	단체회원의 구성원	없 음	

△가입절차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회원가입' 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발전협회 소정 양식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회비납부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301-276447 (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국민은행 485501-01-339123(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회지(신문/책자)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선별적 참가)

■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태성관2층) 06944
- Tel(02)825-8461~2, 811-1412 / Fax(02)825-8460 (군)923-7590, 923-7541
- E-mail / kafva-airforce@naver.com



회비소식

■ 공군전우회

◆ 평생회비 납부하신 분 (2024. 07. 01 ~ 09. 30 까지)

경인수	김연식	문영배	송재윤	이종근	주신호
김광진	김용환	박호성	안창경	임재풍	진용일
김근환	김종국	배순근	오인석	임 호	황기영
김순노	김창래	서송본	유원봉	정원교	

◆ 연회비 납부하신 분 (2024. 07. 01 ~ 09. 30 까지)

강대정	김성환	문병주	변뢰권	이영재	정지성
권영창	김용문	문정구	오을진	이원혁	천훈일
김명호	남창순	반영근	윤부영	이현수	

◆ 찬조금 기부해주신 단체 및 개인 (2024. 07. 01 ~ 09. 30 까지)

부서관전우회	2,000,000	남유열	200,000	조한익	200,000
공군2사총동문회	1,000,000	도회승	200,000	진창석	200,000
LA지회	200,000	박한익	200,000	채수덕	200,000
문영배	3,000,000	변뢰권	200,000	최정호	200,000
김한용	2,000,000	신동수	200,000	(고)김정열	100,000
김영배	1,000,000	심인태	200,000	남궁영	100,000
김장희	1,000,000	이석봉	200,000	김재윤	50,000
윤종상	300,000	이진명	200,000	박종효	50,000
고대수	200,000	정성익	200,000		
김호진	200,000	정양훈	200,000		

■ 공군발전협회

◆ 연회비 납부하신 분 (2024. 07. 01 ~ 09. 30 까지)

박범진			
-----	--	--	--

◆ 기부·협찬금 납부하신 단체/개인 (2024. 07. 01 ~ 09. 30 까지)

고석인	3,000,000
(주)보령	5,000,000(광고비)
군인공제회	2,200,000(광고비)



쇼핑몰

공군전우회에서 전 회원에게 공급 중인 제품입니다.



골프 등산용 자켓
25,000원



동절기 조끼(일부품절)
25,000원



골프장갑
15,000원



뱃지(황동/순금도금)
5,000원

인터넷 쇼핑몰 바로가기 www.airforce.ne.kr 전화주문 (02) 825-8461/2 ※ 구매금액 50,000원이하는 '착불' 배송입니다.